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까치

아침 술밭에 까치 한 마리
깹깹깹 소식을 전해왔어요
까치가 올면은 손님이 온다지
오늘도 누가 오려는 걸까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
깹깹깹 까치는 고마운 산새
오늘도 이 언덕 조그만 집에
누구가 찾아와 놀아 주려나

아침 술밭에 까치 한 마리
깹깹깹 기쁨을 전해왔어요.
언제나 즐거운 까치 소리에
창문을 열고서 내다봤지요.



황광은
(영암교회 2대 담임목사)



02	성시	까치 · 황광은 목사
04	말씀의 샘물	실패를 알게 된 감사
06	말씀백반	창립 70주년 기념 영암 말씀 백(百)반 · 중등부 김도희 / 김혜선 은퇴권사 / 청년공동체 오채훈
10	해외선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참빛교회 방문보고 · 편집부
12	해외선교훈련 소감문	· 중등부 임하은
1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영암	가족들과 어른들과 연탄봉사한 날 · 초등2부 김소윤
15		영암전도대로 오세요 · 박재혁 목사
16		2024년 영암교회 사랑과 섬김 · 편집부
18		해피파티
22	세대별 새로워지는 영암	성찬을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아동세례 · 편집부
24		몽치자 남선교회! 위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 김웅태 장로
25		‘3040 여성모임’에 대해 소개합니다 · 김지연 집사
26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참여 소감문 · 고등부 남궁솔
27	교육부 겨울사역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고등부 박민준
28	영암학당	로마서 이야기 · 박명현 권사
30	일대일 양육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과정을 마치고 · 김정례 권사 / 허유미 집사
33	문화교실	탁구는... · 하태철 안수집사
34		영암교회 축구선교회
35		영암골프문화교실
36		색소폰 문화교실
37		자전거선교문화교실
38		청년부 동아리 활동 소개 · 이근호 청년
40	신임교역자 소개	돌아보면 모든 게 저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 김혜미 목사
41		영암의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 윤대용 목사
42	문화칼럼	마지막 행복의 동반자 호스피스(hospice) · 강진구 안수집사
44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46	영암소식	



실패를 알게 된 감사



유상진 담임목사

초등학생 때부터 육상선수를 하다가 고2가 될 무렵 ‘키가 작고 뚱뚱해서 육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사이클부로 옮긴 학생이 있습니다. 낯선 종목으로 아스팔트에 온 몸이 쏠리는 사고도 있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고2,3학년 기간에는 1등만 했습니다. ‘키도 작고 뚱뚱해서 운동선수로는 비전이 없을거야’라는 말에 자극을 받아 누구보다 철저하게 운동을 했고, 금메달 2개를 따면서 한국 신기록을 5번이나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대개 슬럼프는 노력의 부족이라기보다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빠지게 됩니다. 자전거를 탄지 3년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했으며, 이후 4년간 모든 대회 1등을 독차지 했기에 1등은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등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노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할 수 없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1등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운동선수만큼 등수와 기록에서 자유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늘 비교하곤 했는데, 남들과 비교할수록 남는 것은 자학과 상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회에서 0.02초 차이로 2등을 했을 때였습니다. 스스로를 감동할 만큼 열심히 훈련한 뒤에 나온 결과였기에 미련 없이 2등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훈련과정을 기록하며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이를 통해 인생을 배웠노라 고백합니다. 그가 배운 인생은 한 마디로, ‘실패를 알게 된 감사’입니다. 1등의 자리에만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게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1등만 하다가 2등도 해보고 3등도 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낙오하면 안된다는 긴장과 강박 속에 살던 인생에서 비로소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년 넘게 국가대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는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두었기에 시합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 속상했는데, 지금은 우승을 놓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나를 이긴 선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동은 타고나야 한다며 순발력, 지구력, 스피드를 재능으로 여기지만 인내심, 노력, 끈기

도 재능이라고,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고통을 오래 참는 것도 재능'이라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고귀한 게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 고귀하다!'고. (전)사이클 국가대표 김원경선수가 인생을 배우며 만든 좌우명입니다.

'삶'이라는 운동장에서 스스로를 감동할만큼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또 다시 비교하며 자학과 상처 속에 머무는지, 실패를 알게 된 것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있는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전히 상대를 경쟁상대로만 여기고 있는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도 고통을 오래 참는 재능을 계발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뛰어난 것만을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지금의 나는 인생을 과연 잘 배우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Y**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장29절)





창립 70주년 기념 영암 말씀 백(百)반

기간 2024년 2월 18일(주일)~5월 27일(월) 100일간

통독 녹화 기간 2월 1일(목)~5월 24일(금) 114일 동안 진행

100일차 100회분 통독 영상 총 79시간 21분 52초

유튜브 말씀 백반 영상 총 조회수 57,895회 / 총 시청 시간 : 11,679.5시간

통독 세프 참여 인원 총 231명

〈영광의 통독세프 시상〉

연령별 시상

최연소 참여팀 : 김경순 김진아 한상훈 김주연 한수현(초1)

평균연령 최고팀 : 이흥숙 강인식

평균연령 최저팀 : 어지민 김도희 임하은(중등부)

가족 시상

삼형제 : 남궁찬 남궁승준 남궁솔

세자매 : 안정원 안경원 안혜원

삼남매 : 조규완 조선란 조후영

세며느리 : 이선희 김현숙 윤정희

4세대 참여팀 : 이남희 조영주 남지유 박서검

특별 시상

새가족 : 권정연 장은미

선교사 : 장영배 김사랑



수고하신 분들

스튜디오 장비 및 1차 편집 : 문정식 안수집사 / 촬영 : 최석빈, 김기동, 박재혁 목사, 남승관 안수집사 /
영상 최종 편집 : 김영한 전도사 / 기획 및 총괄 진행 : 최에스겔 목사 / 3분 레시피 : 영암교회 교역자 전체 /
통독세프 : 영암교회 231명의 성도



중등부 김도희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김도희입니다.

처음 어머니께 영암 말씀백반 통독을 권유 받았을 때는 유튜브에 얼굴이 나오는 게 부끄러워 거절을 했습니다. 이후에 해외선교를 다녀온 후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말씀백반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만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소리내어 말씀을 통독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다보니 저에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녹화를 마치고 나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장33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항상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16~18절)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늘 이 독서대 위에서 성경말씀을 통독하시며 묵상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말씀과 기도를 남겨 주셨습니다. 2세대인 저는 3세대 딸부부와 함께 성경통독에 참여하였습니다. 4대 자녀는 중등부 친구들과 성경통독에 참여했습니다. 레시피를 만들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반 웨프들을 미리 소개해주셔서 기대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백반을 차려주신 웨프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에 참여하여 완독하신 영암성도 여러분들과 창세기로 시작은 하였지만 아직 완독 못하신 분들도 완독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백반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혜선 은퇴권사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백반 86일차 쉼프 청년부 오채훈입니다.

20년 전, 영암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때, 케익 커팅을 했던 어린 제가 자라서 교회 창립 70주년의 영암 말씀백반 통독 쉼프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영암 말씀백반 광고와 전교인 참여라는 지원서를 보면서 ‘어른들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또한 예배시간과 수련회와 모임 등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번갈아 교독하거나, 눈으로 읽었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온 교인들이 다 본다는 것에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부에서도 ‘우리도 함께 해보자’라며 서로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리 약속을 한 어머니와 함께 쉼프로 참여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읽었을 때는 글자가 틀려도 그냥 지나쳤는데, 소리를 내어 읽어보니 글자가 틀릴까하여 더욱 집중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 많이 읽고 들은 말씀 구절인데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말씀 앞에서 저는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잔과 떡을 받았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 후 통곡하는 말씀 구절에서는 제 신앙 생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혼자서 읽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읽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86일째의 쉼프로서 부족한 솜씨였지만, 영암 말씀백반을 먼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영암 교회 전교인들이 맛있게 드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늘 영암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100주년을 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청년공동체 오채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참빛교회 방문보고

유상진 담임목사님은 2024년 2월 28일에서 3월6일 까지 7박8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명 중 약 7%의 인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87%는 이슬람이며, 나머지는 가톨릭과 힌두교, 불교로 분포되어 있는 무슬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교일정은 서울북교회주파송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박윤길, 박은숙 선교사님이 계신 자카르타 참빛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참빛교회 사경회, 주일예배 인도 및 돌로스 신학교 채플,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자카르타의 돌로스 신학교는 현지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50명이 재학중이다. 1999년 12월 당시 300명이 재학 중이던 신학교에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라마단 금식기도 후 돌로스 신학교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25명이 부상을 입고, 살리만이 참수당해 순교하게 되는 큰 피해를 입어 문을 닫았었다.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신학교를 열게 되었고 현재 강당 이름을 살리만 채플로 짓고 지금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과정에 임하고 있었다.

이번 일정은 주로 말씀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장시간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시간 속에 모든 학생들이 뜨거운 열정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함께 하였고,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식을 준비하여 2시간 넘는 거리임에도 기쁨으로 섬겨주셨다. 이러한 섬김과 열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비전이 있음을 느끼며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은 참빛교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목회자 재훈련, 재교육 기관이다. 지금까

지 143명의 현지목회자들이 훈련받았으며, 현장 목회자들이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6개월간 숙식을 같이 하며 훈련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7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자카르타 한인교회에 큰 교회가 많지만 참빛교회는 신생교회로 20년이 채 안되었고, 200명 정도인 교회임에도 훈련원의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1년에 약 6000만원, 건물월세, 훈련원 담당하는 분들,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회자들, 모든 숙식과 학비까지)을 참빛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참빛교회는 10년 전에 자카르타 시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느라 빚이 있어서 교회예산을 빚을 갚는데 지출하고 남은 절반 중 3/1을 선교에 사용하며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쓴다는 재정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더 헌신하고 헌금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다. 참빛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이며, 모두가 자원해서 섬기며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와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무슬림 국가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이 선교하는 것은 위험하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현지사역자들이 현지에서 잘 사역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다. 참빛교회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이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이 커서 많은 분들이 현지에 머물러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빛교회는 인도네시아 땅의 복음화를 위해 귀한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 교인구성은 현지 교민사업자와 주재원이 대부분이며, 주일에는 1,2부 예배

를 드리고 있다. 주일 오후에는 인도네시아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중에는 참빛문화원 사역으로 25개 강좌를 성도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다.

모든 일정 속에 박윤길 선교사님의 수고와 참빛교회의 귀한 섬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 우리 영암교회는 내년(2025년)에 인도네

시아 참빛교회를 통해서 장년부 단기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함께 한다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빛교회와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을 위해 사역하시는 박윤길 박은숙 선교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이어가 인도네시아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 Y



해외선교훈련 소감문



중등부 임하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암 교회 유럽 해외 선교훈련을 다녀오게 된 중학교 2학년 임하은입니다.

저희 해외 선교팀은 이번에 '삶에서 신앙으로, 분쟁에서 화해로'라는 주제를 두고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주제가 잘 이해 되지 않

았고 와 닿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내 자리가 맞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가기 전까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기도 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걱정과 설렘, 그리고 함께 나눌 복음을 품고 2월 14일 비행기에 올라 탔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이탈리아 피렌체였습니다. 저희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과 조토의 종탑 등을 보고 느끼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피렌체에 도착해서는 설렘과 기쁨만 너무 가득해서 조별 모임 때만 잠깐 주님 생각을 했지 활동을 할 때는 그저 여행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교지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중등부 부원 몇몇끼리 작게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며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의 마음이 먼 타지에 와서 주님을 더욱 찾고 있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눈물로 기도한 후 마음의 평안과 위로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신기하기도 하고 거의 처음 가져보는 감정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후로도 저희는 점차 사람을 늘려가며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일정을 마치면 밤 시간이어서 피곤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부흥회에 참여할 동안은 잠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동안 산만하고 천진난만하기만 했던 마음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가질 수 없던 기회이고 시간이어서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 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의 임재를 느낀 채 세 번째 선교지인 프랑스 샤머니의 아름다운 눈이 쌓인 몽블랑 산을 탐방하고 그날 밤에도 작은 두 손들을 모아 남은 우리의 선교 훈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주일에는 네번째 선교지인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훈련에서 가장 궁금했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가 이번 해외 선교훈련의 취지에 가장 맞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찬양을 종교개혁 공원에서 노방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정말 우리가 먼 타지에 와서 주의 복음과 뜻,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긴장했지만 선생님, 목사님들께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네바에서 힐송 처치를 다녀왔는데 제

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배이기도 하고 언어도 달라서 걱정되기도 하고 이질감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앞에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다들 따라 부르고, 나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힐송 처치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교를 온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여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저희만을 위하여 기도해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겉모습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생각이 그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까지 듣고 저희는 힐송 처치에서의 주일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날 스위스 WCC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전 세계 교회는 각기 다른 곳에 있고, 모습도 다르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위스에서의 일정을 잘 마무리 하고 다섯 번째 선교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거대한 에펠 탑을 방문하고 오르세, 루브르 박물관의 멋진 작품들을 잘 관람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인 아일랜드 더블린, 벨파스트에서 여러 벽화 등을 보고 그 벽화에 새겨진 의미들을 곱씹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벽화에는 최근의 전세계의 많은 전쟁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굳이 글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일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

무리하고 2월 24일 무사히 한국에 도착 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해외 선교훈련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 들으며 느낀 것은 내가 주님께 응답받지 못해도, 주님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가고 믿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너무 허무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를 다녀와서 주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것과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또 사실 저는 예전 저의 일상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더욱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섬기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 주변의 친구,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교훈련은 나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내가 더욱 신실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희 위해 고생 많이 해 주신 선생님, 목사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며 세상 가장 크고 온유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가족들과 어른들과 연탄봉사한 날



초등2부 김소윤

아침에 엄마가 봉사한다고 따라가라고 했다. 오빠들이 연탄 봉사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는 운동하라고 따라가자고 했다. 힘들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도 같아서 따라갔다.

엄마와 오빠들과 마을버스를 타고 어느 동네에 갔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서 당황했다. 엄마가 언덕 아래로 가자고 해서 내려가니 사람들과 연탄이 있었다. 남자 어른이 기도하고 연탄 나르기가 시작되었다. 엄마가 운동하러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연탄을 날라서 당황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르니까 나도 날랐다. 2개씩 나르고 마지막까지 날랐다. 연탄을 창고에 놓기도 하고 아주 작은 집들 앞에 놓기도 했다. 그곳에는 다 쓴 주황색 연탄들이 쌓여져 있었다.

‘연탄을 다 쓰면 저렇게 되나보다.’

주황색 연탄을 보니까 신기했다.

연탄 봉사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힘든 일을 해서 맛있었다. 엄마, 오빠들과 함께 해서 재미있었다. 오빠들은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고 했다. 나도 또 올지도 모르겠다.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일을 해서 뿌듯했다. Y



영암전도대로 오세요



박재혁 목사

안녕하세요. 영암전도대를 소개합니다.

영암전도대는 상시전도대원과 중보기도대원 그리고 훈련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6월/9-12월 상하반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전회를 갖고 12시 30분까지 전도활동을 합니다.

상시전도대원들은 교회주변(신설역, 보문역, 성북천)으로 2인 1조로 흠어져서 전도활동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암교회 오세요!”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드리면서 예수님과 영암교회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잘 알기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대원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하신 말씀처럼 전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분들이 바로 상시전도대원들입니다.

중보기도대원분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로 믿음의 간증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시전도대원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70주년을 맞이한 영암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가득하여 영혼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되길 기도하는 중보기도대원들입니다.

같은 시간에 전도학교에서는 예비전도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왜 전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며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 갑니다. 가슴 뛰는 비전과 가슴벅찬 전도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며 전도대원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교회 밖에서는 상시전도대원이 활력있게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중보기도대원이 영력있게 기동하기에 영암전도대가 힘을 얻어 생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암전도대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영암전도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가시는 일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암전도대의 자랑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한마음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암전도대를 흥왕케 하심이 영암전도대의 감사입니다.

영암교회 안에 영암전도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맞으며 전도하는 일에 영암의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Y**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6-7)

2024년 영암교회 사랑과 섬김

우리 영암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1. 설 명절을 맞이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시도록 주변 이웃들을 위해 명절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여 떡,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겨울이불 60채를 전달하였습니다.

2. 우리 영암교회는 안암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반찬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화요형제모임에서 안암동 저소득층 반찬나눔 섬김을 주민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기관들과 협력하여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이루 어가기 위한 노력이며,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가기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3.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식량위기 후원을 위한 한끼 음식 모금 캠페인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한 모금 캠페인은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Y**

해피파티



영암교회는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잔치인 해피파티를 지역 어린이들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아동세례



아동세례는 유아세례와 달리 아동자신의 “자유지와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세례이며, 입교 예식은 따로 없기에 이는 단순히 하나의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자리가 된다. 특히 아동세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가장 큰 특징은 성찬에 참여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유아세례, 아동세례, 성인세례가 모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암교회의 경우 총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유아, 아동세례자의 경우 부모 및 교회학교 교사의 입회 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찬의 오용과 참여 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영암교회에서는 먼저 3월 모든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성례전 중심의 성찬예배로 기획하여 부모와 자녀, 모든 세대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5월5일(어린이주일)에 유아세례와 함께 첫 아동세례식을 진행하였다.

2024년 처음으로 아동세례를 시행하였다.

아동세례는 106회 교단총회에서 새롭게 제정하여 기존의 세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 1)유아세례: 0~2세 → 0~6세
- 2)아동세례: 없음 → 7~12세
- 3)세례 · 입교: 14세이상 → 13세이상

우리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과정에서 ‘어린이세례’라는 용어 대신 ‘아동’이라는 단어를 택하였고, 이 안에 유아(0~6세)와 아동(8~14세)을 모두 포함시켰다.

모든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험은 그들이 영암교회의 한 가족이고, 일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신앙교육이 교회학교, 공과공부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성찬이라는 공동체를 통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 산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아동세례에 참여한 자녀들은 초등1부 3명(김유강, 김유하, 정지유)과 초등2부 3명(구나연, 송주희, 이해진)으로 총6명으로 4주간의 교육과 문답을 받고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영상편지를 보내주셨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Y**



뭉치자 남선교회! 위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김웅태 장로

뭉치자 남선교회1, 2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약할 때 힘주시고 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남선교회의 구성은 매년 초를 기준으로 제1남선교회는 만 70

세로부터 66세, 제2남선교회는 만 65세부터 61세, 5남과 6남은 50세 이하의 남성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말에 차기년도 남선교회를 구성하던 중, 제2남선교회원의 구성이 60년생과 61년생이 각 1명 정도밖에 없어 58년생이 1남으로 가는 경우, 제2남선교회 인원이 없어 각 지교회를 돕는 선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5, 6남선교회도 하나로 되어 있으나 거의 구성을 못하고 윤한결 회원 외에 두세 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는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58년생이 2남에 잔류를 하고 1남은 67세 이상으로 구성하며 내년 이후에는 1, 2남을 하나로 3, 4 남을 하나로 하고 이후의 남선교회는 모임 자체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암의 희망이 되는 30, 40대와 기존 남선교회 활성화를 고민하며 유상진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던 중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1,2 남선교회원들의 절실하고 애타는 마음이 발현되었습니다. 젊은 남선교회원들과 함께 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밥을 먹으며 친교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밥묵자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기사업을 하는 서동화 회원은 조찬기도회와 뭉치

자 남선교회에 최고급 고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소담을 운영했던 권영주 회원은 최고의 실력으로 보쌈과 갈비탕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제1,2남선교회 주관으로 조찬기도회와 뭉치자1, 뭉치자2 모임에 가족들과 함께 초대를 하였으며 늘푸른회원에게는 예배 후 점심대접을 하고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축구선교팀에게까지 고기의 아름다운 참 맛을 선보이는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영암교회 남선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고기를 삶으시는 김상근회원님,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는 김동호, 최재억회원님, 축제에 봉사하시는 여성동지들을 보며 작은 일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젊은 회원들과 해피파티에 모인 젊은 세대와 새가족부에 등록하는 새신자들을 보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뭉치자 모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앞으로 5, 6남선교회가 얼마나 거둢날지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기도에 힘쓰려 합니다.

또한 김효순권사님의 닭튀김의 맛과 정성, 늘 한결 같았던 주방 봉사를 기억하며 이웃 사랑의 근본을 보이신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영암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Y

‘3040 여성모임’에 대해 소개합니다



김지연 집사

‘3040 여성모임’은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30~40대 여성들이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소통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가는 모임입니다. 치열한 직장과 사회생활,

가사와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 30~40대가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을 믿음의 힘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인생의 길, 신앙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첫 모임은 2023년 11월 5일 ‘웬만하면 나 혼자 온다.’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모임은 2024년 2월 18일 ‘그녀들의 수다 할말하얏’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3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바쁜 상황 속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다과와 나눔지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고 결혼을 통해 변화된 가족관계, 자녀양육, 직장생활, 신앙생활, 앞으로의 계획 등 삶의 나눔 속에서 서로 공감하며 격려함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즐거움에 웃기도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정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함으로 모임을 마무리 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속한 소그룹 다락방 외의 성도님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남편들이 돌봐주거나 4층 놀이방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기다리기도 하고 모임 장소에 함께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굵고 짧게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3040 여성모임’은 3부예배 마친 후부터 1시간 반정도 모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만큼 ‘3040 여성모임’은 뜨겁습니다. 곧 세번째 ‘3040 여성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번 다른 주제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들, 언제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3040 여성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Y**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그리고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암의 곳곳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139호 영암지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각 세대별로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들을 모아 특집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어린이날에 유아 세례 대상이 없어 가장 어린 세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시작이 되는 출산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특집을 마무리합니다.

〈편집자 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참여 소감문



고등부 남궁솔

새벽기도회는 항상 삶의 교훈을 얻어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다.

이번 특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를 품고, 나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이른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아갔다. 담임목

사님께서 첫날 하신 설교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때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다른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인데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고등부 공동체와 나누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다짐을 했다. 이번 새벽기도회 나의 기도제목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였다.

이번 특새기간동안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 자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다. 학창 시절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 일주일 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몹시 설레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힘든 나에게 마지막날 설교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내는 것, 일상에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이번 새벽기도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일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계기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특별새벽기도회라고 해서 그냥 새벽기도회와 다른 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러 오고자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새벽기도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새벽부터 일어나 오후까지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그럼에도 다음날 새벽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몸이 힘들어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다. 같은 마음으로 나아온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다. **Y**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등부 박민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번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나에게 첫 고등부 수련회이자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그럼에도 수련회 당일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였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고민 끝에 참석을 결정하였고 수련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리조이스 캠프에 참가하였다. 리조이스 캠프의 일정을 얼핏 들었을 때도 ‘내가 저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와 강의의 반복인 처음 겪는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며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예배를 드렸다.

첫 번째 예배 설교시간에 좀 졸았던 것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덜 힘들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둘째 날 예배를 드리고 선택 강의를 두 번 들은 뒤 다시 예배를 드렸다. 첫째 날보다 더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예배와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펼쳐 읽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특히 둘째 날 마지막 예배가 마무리될 무렵 위러브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시편 23편)’을 찬양했는데, 알 수 없이 계속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세례도 받지 않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나이지만, 이런 미성숙한 나일지라도 다른 이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안한 나여도 거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찬양을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앞서 우려한 적응에 대한 문제는 수련회 기간 중 팀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좋은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이제 난 내가 누구인지 어렵פות이 알 것도 같다. 이번 수련회에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 덕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생겼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더 진실되게 성장한 나를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싶다. Y

로마서 이야기



박명현 권사

앗싸~! 로마서다. 명쾌한 로마서가 나는 참 좋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는 말씀 따라 로마서는 대할 때마다 부언부연 겹가지 없이 ‘이것은 이러니 그러므로 이러하오’라고 결론지어 복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4복음서에 이어

제5의 복음서라 일컬음을 받는 로마서가 감사하다.

주일예배 후 대면하며 정식으로 영암학당 강해 들음이 얼마만이던가?!

이런 저런 이유를 갖자면, 주일 교회 와서 1주일 만에 얼굴 보는 사랑스런 지체들과 잠시 수다를 떠노라면 60분은 가뭇물 밭 물 붓듯 순식 사라지는 시간이며, 여차 저차하면 11시 강해시간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치기 쉬운 배움의 장이다.

큰마음을 먹었다. 새로 부임하신 이름과 용모가 무척이나 확연한 기동목사님께서 강사이심도 한 몫 하셨음을 빼 놓을 수 없다.

봄학당에 들어와 배움이 감사인데, 아뽀사~! 삶이 예배이신 집사님께서 8차시 강의 내내 떡을 공궤하셔서 놀랐고... 감사하였고 즐거웠다. 역시 큰 결심하기를 매우 잘했다.

서신서인 로마서는 3차 선교여행 말기인 A.D. 57년 말-58년 초순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3개월을 유숙하며,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가 되어 읽도록 기록한 편지이다.

만약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세계역사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다.

종교개혁 불씨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온갖 수행, 자기 금욕에서 찾지 못했던 구원의 해결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를 읽고 구원은 그 어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얻고, 당대 로마 카톨릭 면죄부 장사가 잘못되었다는 반박을 과감히 써 불임으로 우리가 현재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탄생 태동이 되어 종교판도가 달라졌다.

방탄과 방황의 세월을 지낸 32세 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됨의 결정적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나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1-14) 이었다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첫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롬15:15)**

둘째,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 모금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으**

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이라”(롬15:23-24)

셋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돕기 위함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였다.

예루살렘을 방문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로 돌아와 세운 로마 교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대부분의 성도였고, 이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논쟁으로 유대인들 간에 분열이 생겼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그에 앞서 바울이 방문한 적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교회 성도들을 돕고 권면하기 위하여, 먼저 서신을 통해 바른 교리, 무엇보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으며, 만남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기독교 핵심 진리인 구원관과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을 분명하고도 명쾌히 제시하였다.

로마서의 주제는 루터를 회심하게 한 1장 17절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以信稱義)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신 신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피 값으로 완성 시키시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주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요3:18) 하시며, 정죄라는 말 대신 심판이 없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성도들 간 다름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모래알 같은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지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게 함이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니 우리는 참복이 있는 사람이다.

삶이 예배다. 살아가는 순간 모두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삶의 일터에서 주께 하듯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은사를 주신다.

강의 끝 날, 강사목사님 간증이 있었다. 전깃불 들어오지 않는 (30대초목사님) 경북척척산골마을 가족, 친척 누구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 없던 종가 집 가정에 택하시고 지정하사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담담히 증언하신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각각은 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사후 문제가 아니라 매일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임이 뚜렷하다. 천국 갈 때까지 몸부림쳐야 한다.

아는 만큼 많이 찾으신다고 한다, 아는 만큼 믿음으로 행한 것이 모두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는다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으나, 삶 속에서 변화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음으로 쓰게 된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진짜 복음은 삶을 변화 시킨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그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다.

로마서 주제 “복음의 능력”이 복음 로마서를 다시 들음으로 나와 영암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Y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과정을 마치고



일대일제자양육훈련은 양육자와 동반자의 16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후 양육자는 다른 동반자와 새로운 과정을 진행하며, 잘 양육받은 동반자는 새로운 양육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다른 동반자 과정 수료자들과 함께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 설날을 제외한 4주간 매주 토요일에 양육자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헌신자들을 위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이 진행되었으며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3명에는 이미 양육자반을 수료하였으나 재점검하고자 다시 참여한 계속 수료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육자로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될 양육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육자반을 수료한 귀한 모든 분들 중 두분의 소감문(간증문)을 영암지를 통하여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육훈련부>

제가 20여년전 양육자과정을 수료한 이후 직장 일로 인하여 별다른 교육과정을 참여하지 못하다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보다 심화된 봉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에 또 한 번의 일대일 양육자 과정이 개설되었고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받은 지체로서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대일 양육자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게 배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마음의 벽을 트고 축복 받는 공감 능력을 키워낼까 하고 고민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 자식도 양육하기 힘든 일인데 남을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에 기꺼이 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양육자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니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는 꽃길만을 걸어라 라는 말들을 자주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이 과연 꽃길이 될지 아니면 차가운 돌바닥 같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써 주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실 그 길이 양육자 모든 이에게 꽃같이 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내게도 몇 번의 양육자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나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스쳐 지나 갔었고 이번과 같은 좋은 시간을 얻기 위해 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더욱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은 지식과 경륜이 있어 누구를 잘 인도하리란 생각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배우고자 하면 할수록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도해주신 목사님께서 양육자에게 전달하는 교수 방법



▲ 김정례 권사

론이 어렵다든가 어떤 단계적 레벨을 요구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어서 일반적인 성도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말풀이 뜻풀이로 너무 쉽게 교육을 잘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육이라 함은 피교육생이 되면 단어 자체가 긴장도 되고 딱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고 행하냐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번 교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양육자가 부담없이 임할 수 있었고, 중요 요점들과 성도와의 교제에 대해 양육방법을 통해 쉽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힘을 보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밑거름을 충실히 다듬고 다져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잘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어 봅니다. 다 채운 후 누군가를 이끌기에는 평생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다 세월 다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이런 일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과정으로 참여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Y**



▲ 허유미 집사

사랑하는 영암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유미 집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녀 2남의 3남매 엄마입니다. 3명의 아이들이 영암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영암교회는 2013년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부에서 6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일대일제자양육훈련 동반자과정을 16주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했고 찬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담당해주셨던 양육자님은 서경희 권사님이셨습니다. 토요일 6시에 만나 16주간을 주님에 대해, 나의 믿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적용하던 중 말씀에 갈급했던 갈증이 해소되면서 주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지식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경희 권사님의 살아오신 이야기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운 기도제목을 나누며 16주를 마친 후 권사님께서 저에게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반에 참여를 해보라고 권유하셨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흘러 이제야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주보에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과정 광고가 나왔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저였지만 어느 날 제가 속해 있는 단독방에 일대일제자양육

훈련 양육자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이름을 올리라 하여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에 4주 교육이 있는데 저는 1주를 놓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2,3,4주 교육이 송이 꿀보다 달았고 주옥보다 값진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20세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넘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속성에 대해 알아갈 때마다 나의 속성을 하나씩 머리 속에 되뇌어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4주동안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반 과정을 배우러 교회에 올 때 저의 마음은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는 설렘처럼 두근거리고 뽀스레 흥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아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 보다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일대일제자양육훈련 양육자반 과정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4주는 짧은 것 같습니다. ㅎㅎ

지금 저에게 새로운 동반자 한분이 계십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 분과 함께 16주를 함께 하며 주께서 저희 두 사람을 성장시키실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영암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후회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공동체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답니다. Y

탁구는...



하태철 안수집사

“제대로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면 장수는 저주가 아닌 선물이다. 그것은 기회로 가득하고, 시간이라는 선물이 있는 인생이다.”

‘100세 인생(The 100-Year Life)’이란 책을 쓴 린다 그래튼(Lynda Gratton)과 앤드루 스콧(Andrew Scott)이 주장한 것이다. 길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런 삶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스포츠는 좋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 김병준 인하대 교수(스포츠심리학)는 “특정 스포츠를 즐기면 늘어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라고 말했다.

탁구는 274cm, 152.5cm 테이블 위에서 15.25cm 높이의 네트를 사이에 두고 지름 3.72~3.83cm 작은 공을 치다보니 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또 빠른 공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탁구채를 휘두르기 때문에 좌우 뇌에 큰 자극이 돼 치매 예방에도 좋다. 바닥에 떨어진 볼을 줍는 것도 상당한 운동이 된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포핸드 백핸드 할 때 전신운동이 된다. 탁구는 최고의 실버 스포츠다.

다음은 2023년 10월 31일자 헬스조선의 ‘미국 89세 탁구왕 할머니’란 제목의 기사내용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지난 여름 랭커스터시니어게임 탁구 단식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레이첼 윌리엄스(89)에 대해 보도했다. 윌리엄스는 시어머니가 치매로 고통 받는 모습을 본 후, 지난 2007년 존스홉킨스대 알츠하이머 연구에 실험

참여자로 들어갔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는 탁구와 탭댄스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공을 서브해주는 탁구공 발사기를 구매해 혼자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거의 매일 탁구 연습을 하고,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하며, 주 5회 탭댄스를 춘다.

탁구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 효과를 동시에 낸다. 탁구는 세로 14m, 가로 7m 탁구장 코트 안의 제한된 범위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탁구를 1시간 치면 약 300kcal가 소모되는데, 이 운동량은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탔을 때와 맞먹는다. 그리고 탁구를 치면 작고 가벼운 공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쳐야 해서 운동 신경 발달과 근력 단련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공의 방향과 회전 속도를 가늠해야 해서 두뇌 발달에도 좋다. 특히 윌리엄스처럼 탁구공 발사기를 이용해 탁구공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맞추면 뇌가 더 자극받는다. 플로리다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탁구공 발사기는 어느 높이와 각도로 공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노인 인지기능 향상에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위와 같이 탁구는 친목 및 성도 교제 하기에 좋은 운동이다.

이번 영암 탁구 교실을 통하여 친목하고 교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Y**

이번 영암탁구 교실 일정은

3월 27일

4월 3, 17, 24일

5월 1, 22일

6월 19, 26일

7월 3, 10일 진행이 됩니다.

영암교회 축구선교회

안녕하세요~ 우리 영암교회 축구선교회를 소개합니다.

2002년 교역자님과 청년, 장년으로 시작된 축구선교회. 실력을 떠나서 축구를 좋아하고 관심 있으신 영암교회 중,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성도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운동하며 교제하시면 대환영입니다. 나이, 직분, 실력... 모든 걸 떠나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초기운영 청년, 교역자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장년 매주 주일 오후 3시
주일 1,3주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외부강사, 장년팀)

현재운영 매월 1,3주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2,4째 주일은 외부구장으로 원정도 가서 타교회팀과 시합하며 교제

친교부 담당이신 김기동 목사, 축구선교회 감독으로 박형우 안수집사, 총무로 이동일 안수집사, 회계로 문정식 안수집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Y**



탁구문화교실의 발족을 맞아 영암의 문화교실 활동을 모아서 소개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로 성도간의 교제와 함께 선교의 통로로도 많은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소개 순서는 문화교실이 발족된 순서입니다.

〈 편집자 주 〉

영암골프문화교실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영암골프문화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암교회교인 및 새가족 그리고 믿지않는 주위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Y**

〈영암골프문화교실 안내〉

1. 시작일 : 2013년 3월부터 모임 시작
2. 강 사 : 이상호 사단법인 한국아시아프로골프협회 회장 (재능기부)
3. 임 원 : 회장 박성열, 총무 최종상, 회계 김선경, 코치 박영, 이현철, 기노창
4. 회 원 : 약 30여명
5. 모 임 : 매주 토요일 모임

〈2024년도 주요계획〉

1. 분기별 특강 : 드림센터 502호 (이상호 교수님, 박영 코치님)
2. 매주 토요일 13:30~16:30 스크린골프 or 인도어 골프연습 모임
3. 상반기/하반기 정규홀 라운딩 년2회



2024년도 골프문화교실 회원



2024년도 골프문화교실 개강예배



2024년도 토요일 골프문화교실 스크린 모임



2024년도 분기별 골프특강

색소폰 문화교실

색소폰 악기로 합주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모임을 시작했으며, 정식 명칭은 “쉐마 색소폰 앙상블팀”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매월 첫째주 2부예배후에, 로템카페 회의실에서 모여, 말씀나눔과 근황, 기도제목 나눔을 하고, 합주연습 일정을 논의합니다.

합주 연습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년 3회 공연합니다. **Y**

(구성) 총 10명

태너 색소폰 : 유광수 은퇴안수집사 (단장)

알트1 색소폰 : 신호현 은퇴장로, 박영란 은퇴권사,
박인걸 집사

알트2 색소폰 : 안혜원 은퇴권사, 길학철 장로 (총무),
김영한 전도사

준회원 : 김태균 안수집사, 박주학집사, 이주혁집사

기도제목

1. 회원모두 건강한 가운데, 합주 실력이 날로 향상되어 아름다운 합주 연주로 영광돌리도록
2. 나이 불문하고 신입회원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3. 색소폰 합주 연습장소가 확보되어 효율적인 연습이 가능하기를



담임목사님 연습 격려시



소그룹 모임



부활절 공연

자전거선교문화교실



자전거선교문화교실은 성도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불어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2019년 초가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이 적었던 선교관의 방 하나를 허락받아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정비하면서 재미있게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한강을 달리면서 깔깔거리던 모습이 생 각됩니다. 그해 가을에는 한강불꽃축제를 구경 가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말에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으로도 함께 모이기 힘들어졌고, 선교관이 잠정폐쇄되면서 여럿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의 기간 동안 소규모로 라이딩을 즐겨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도 동해안 라이딩 4회, 춘천~서울 간 라이딩 3회, 새만금방조제~고군산군도 라이딩, 영월 라이딩, 동강 라이딩, 청년과 함께 하는 야호라이딩, 창립70주년기념 70키로 챌린지라이딩 등 많은 곳을 자전

거로 함께 즐겨온 끈끈하고 정 많은 문화교실입니다.

당뇨, 운동부족 등에 아주 좋고 노년에도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전거라이딩을 함께 함으로 더 즐거운 자전거선교문화교실입니다.

초기 멤버로는 장지철 장로님을 필두로 남궁식 집사님, 한성화 집사님, 최낙조 집사님, 조례경 집사님, 박성현 집사님, 문정식 집사님, 이현철 집사님, 기노창 집사님, 전동진 집사님, 이동일 집사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박성열 집사님, 전유미 집사님, 박영 집사님, 윤한결 집사님, 최종상 집사님, 이주혁 집사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년 멤버로는 최한림, 장현빈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곳은 교회 아래 큰길가에 있는 영암교회 선교관에서 주로 모여서 라이딩을 시작하고 있으며, 함께 교제를 주로 나누는 곳도 선교관입니다. 모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번개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 해에 약 3~4회 정도의 정기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Y**



청년부 동아리 활동 소개



이근호 청년

안녕하세요. 청년부의 이근호입니다. 오늘은 이 면을 빌려 신앙의 선배님들께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청년부는 가정이라 불리는 6개의 소모임을 통해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한 명의 리더가 있고, 5명 정도의 가정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모임에 나오는 가정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리더의 짐을 덜기 위해 청년들의 흥미를 모아 각 가정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각 가정의 리더들에게 어떤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정인 : 저희 가정은 예배 후 음악 감상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음악과 관련된 문화 생활을 함으로써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달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듣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원소영 : 저희 가정은 독서 가정입니다. 월별로 공동체, 일, 경제,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공부와 취업준비를 하고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기에, 크리스천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눠보고자 시작한 가정입니다.

오채훈 : 저희 가정은 서로의 일상과 삶의 나눔을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며 진솔히 나눕니다. 평소에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카페를 찾아내거나, 그 가운데 재밌는 활동들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고 있습니다.

최정우 : 저희는 탁구 가정입니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운동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또 모임을 마치고 오는 다른 가정원들, 고등부 학생들도 함께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아 : 저희는 자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높고 낮은 산을 계절마다 다니면서 플로깅을 같이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정상으로 올

라갈 때 공동체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근호 : 저희는 볼링을 치기도 하고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는 모임입니다. 교회 곳곳에 재야의 고수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파릇파릇한 20살들과 21살들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걸 보면 젊은 피의 무서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



돌아보면 모든 게 저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김혜미 목사
(초등2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던 날이었습니다. 벽걸이 난로 밑 책상에 배정된 저는 그만 점심시간 뒤 이어진 시험에서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원했던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다 할 꿈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대학에

서 전공 수업과 조이선교회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서 메일로 보내주셨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혜미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력,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력이란다.”

아버지의 조언에 마음 깊이 밑줄을 그었음에도 지난 몇 년간, 저는 이 체력을 지키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4년 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고 지난 2년여 동안은 결절성 양진이라는 피부면역질환으로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쉬이 낫지 않는 상처들을 바라봅니다. 옅의 마음이 피부로 이해되는 중입니다.

믿음이 한없이 푸르던 청년의 시절, 저는 단기선교로 1년 반 머물렀던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사로 서원했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서원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키르기스 사람들이 사는 인근 국가의 지역, 성경을 몰래 배달하며 기도했던 그곳으로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도록 이끄셨고 전도사로서 첫 사역도 남양주의 한 이주민 선교회에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매월 연구비를 받으며 다문화교육 박사과정을 밟도록,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년간 어린이 부서를 맡아 사역하면서 어느덧 주일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졌을 때였습니다. 2022년 10월 목사안수를 받고서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사역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별처럼 빛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저는 영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생후 100일쯤부터 6살 때쯤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암으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암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는 어린 혜미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보다 더 멋지게 그 나라를 이뤄갈 초등2부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처럼, 어린이들에게서 종종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저는 육체의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영암에서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작은 퍼즐 조각 하나라도 맞춰가는 데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초등2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Y

영암의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윤대웅 목사

저는 중등부를 섬기게 된 윤대웅 목사입니다. 저는 ‘빵집’이라 불리는 대전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대전은 느긋하고 차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좋다는 표현도, 싫다는 표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지내던 따스한 봄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등굣길 웃으며 인사한 아버지는 그날 오후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게 큰 나무였던 아버지의 부재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자 밀려오는 슬픔을 견뎌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한동안 인생에 대한 치기어린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슬픔에 신음하고 있던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제 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사랑하는 아들(시 2:7)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제 삶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목회자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딸, 유치원에서 가장 형님 반에 있는 아들입니다.

신학교 입학과 함께 ‘교회’라는 현장에서만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에서 ‘기관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은 「한국교회총연합」(UCCCK)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017년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의 결의와 전통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국내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 침례교와 성결교, 그리스도교회와 복음교회, 루터회 등 8개 교파 36개 교단, 65,000여 교회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연합기관입니다. 한교총은 복음과 한국교회의 수호를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사립학교법,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해 안전한 출산과 좋은 양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 다시 못 올 줄 알았던 청소년 학생들과 만남을 앞두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영암의 중등부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심히 기묘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영암 중등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영암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Y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③

마지막 행복의 동반자 호스피스(hospice)

지금 가장 잘 떠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때라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 그날을 위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맞을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줄여주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남은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윤영호의 ‘나는 품위있게 죽고 싶다’ 중에서)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안녕하지 못한 삶을 위한 영화 <안녕하세요>

차봉주 감독의 영화 <안녕하세요>(2021)는 평범한 제목을 가진 비범한 영화다. 자살과 죽음, 호스피스의 세계를 그리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영화가 가진 제목이 겨우 ‘안녕하세요’라니! 그

러나 진리가 누구에게나 가까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쉽고 단순해야 하듯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라는 말 만큼 느낌이 살아있고 의미 깊은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과 말기의 환자로 살아가며 내일 아침에도 과연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안녕’은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말인 까닭이다.

그런데 영화 <안녕하세요>는 죽음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이 두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만들면서 ‘안녕’을 발생시킨다. 자살을 꿈꾸는 여고생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와의 조우는 지옥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경험하게 만든다. 마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곱셈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나 할까. 서로 다른 죽음이 만나서 사랑과 행복에 이르는 삶에 번쩍 눈뜨게 만든다면 어찌 흥미롭지 않을 수 있랴!

세상의 냉대를 받으며 보육원에서 자란 열아홉 살 고등학생 수미(김환희)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한강 다리 위에서 신발을 벗는 중이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호스피스 간호사 서진(유선)은 이를 발견하고 수미를 데려다 먹이고 재우며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 ‘죽는 법’을 알 때까지 잠시 죽음을 멈춘 수미는 엄마와 같은 서진의 돌봄 속에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행복한 죽음과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수미의 직장이기도 한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하며 ‘진짜 행복하게 죽는 법’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죽음이며, 죽음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행복이었던 것이다.

안락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대안

2023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5.951점을 기록하며 57위를 차지했다. 2022년보다 2단계 상승한 수치라고는 하지만 OECD 선진국 가운데는 최하위에 머물기는 마찬가지다. 행복 지수는 1인당 GDP와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자유, 부패 인식, 이웃과의 친밀감, 삶에 대한 만족도 등 6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는데 한국인은 행복하지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한국인의 모습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근 떠오르기

시작한 안락사 이슈가 이를 대변한다. 우리가 말하는 안락사는 조력존엄사(assist suicide)로써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오늘날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스위스에서 조력존엄사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많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의 조력존엄사 단체에 등록된 한국인 수만 300명에 이르고, 실제 조력존엄사로 사망한 한국인은 최소 1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입자 수는 2019년 107명보다 3배나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서까지 죽고 싶은 한국인들이 있는 이유는 현실이 말해주듯 낮은 행복감과 유교나 기독교 등 생명존중의 종교적 가치관의 붕괴, 인본주의적 자기권리에 대한 높은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통과 빈곤 속에서 비참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조력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Hospice) 제도와 활동을 더욱 넓게 확대시키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자 호스피스

흔히 ‘죽으러 가는 곳’으로 인식된 호스피스는 사실 인생을 완성 시키는 곳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는 평안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호스피스가 관여하는 환자들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도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도록 돕는다는 면

에서 인생의 마지막 ‘안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생의 끝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는 일은 호스피스 병동의 분위기를 상상과 다르게 밝은 이미지로 나타나게 만든다. 영화 <안녕하세요>처럼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활기 넘치는 곳은 아닐지라도 죽음을 직면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넘쳐나는 천국의 문 앞에서 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다. 하나는 임종의 순간에 손을 잡아주며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며, 다른 하나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다. 고통이 줄어들면 인간은 품위를 지키는 일이 수월해진다. 그러나 고통의 경감이 곧 행복의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임종의 순간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는 호스피스의 존재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인생은 마지막이 행복해야 한다. 최후의 승자가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행복한 죽음에 이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정말 그 이치를 알고 싶다면 새해에는 <안녕하세요>의 수미처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길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Y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경우



마현준



김나연



김현수



조정희
(2여, 안암2)



권정연
(7여, 안암6)



김순자
(에스더, 안암10)



홍동환
(6남, 안암1)



박신영
(청년)



반영환
(6남, 다락방8)



장은미
(7여, 다락방8)



송성환
(6남, 다락방9)



천호림
(6남, 다락방17)



여성은
(7여, 다락방17)



홍승표
(6남, 용두)



조윤진
(7여, 용두)



서여정
(7여, 보문7)



김태형
(6남, 용두)



조희정
(7여, 용두)



김미숙
(7여, 종로)



배정미
(7여, 안암1)



노은아
(7여, 종로)



지나연
(7여, 성동)



이혜빈
(청년)



이종운
(청년)

[2024년]

새해맞이특별새벽기도회 1월 3일(수)~5일(금)

항존직은퇴예식 · 신입제직임명 1월 7일(주일)

예담동산 99기 1월 7일(주일)~10일(수) 3박 4일 양주 예향교회, 주바라기 1명 참석(임향란)

중등부 겨울수련회 1월 20일(토)~22일(월)

1~7여전도회헌신예배 1월 21일(주일)

고등부 겨울수련회 1월 24일(수)~26일(금)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 2월 3일(토)~4일(주일)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 2월 17일(토)~18일(주일)

창립 70주년 영암말씀 백(百)반 전교인 성경통독 2월 18일(주일)~5월 27일(월)

제직수련회 · 장로헌신예배 2월 4일(주일), 강사 : 이하준목사(신촌장로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해외선교훈련 2월 14일(수)~24일(토), “앞에서 신앙으로, 분쟁에서 화해로”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지 방문

우신장학금 전달식 2월 18일(주일)

몽치자 남선교회2 2월 18일(주일)

창립 70주년 기념 요람 제작 및 배부 2월 25일(주일)

영암학당 봄학기 3월 10일(주일) 8주간 “로마서 이야기” 김기동 목사, 3월 13일(수) 4주간 “앞에서 신앙으로” 송훈 전도사

인도네시아 참빛교회 사경회인도 및 돌로스신학교 느헤미야목회훈련원 방문 2월 28일(수)~3월 6일(수), 유상진 담임목사

선교 주일 · 해외선교훈련 보고 3월 3일(주일) 마요한목사(탈북민 선교 공동체 새희망나루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및 교역자 23명

삼일절 기념예배 3월 6일(수)

영암전도대 개강 3월 12일(화)

세례입교식 3월 17일(주일)

늘푸른예배 시작 3월 17일(주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3월 24일(주일)

교사 리바이벌 3월 24일(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성금요일예배 3월 25일(월)~29일(금)

주제 :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창립 70주년 하태철 수요탁구교실(1기) 시작 3월 27일(수)

봄맞이 교회대청소 3월 30일(토)

부활주일 예배 3월 31일(주일)

늘푸른대학 상반기 개강 4월 3일(수)~4월 24일(수)

다음세대 가정예배학교 4월 7일(주일), 14일(주일) 2주간,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창립 70주년 70km 챌린지 라이딩 4월 20일(토), 주관 : 자전거문화교실

제82회 서울복노회 정기노회 개최 4월 30일(화), 영암교회

어린이주일 · 아동세례식 · 영유아축복기도 5월 5일(주일)

창립 70주년 특별사경회 1차 5월 10일(금) 주제 : 가정의 회복과 치유, 강사: 홍인종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

새가족 환영 오찬(담임목사와 함께) 5월 12일(주일)

에버그린 파티 5월 19일(주일) 은퇴 남녀선교회원

영암컵 축구대회 5월 19일(주일) 중,고,청,장년부

창립 70주년 영암말씀백(百)반 완독식 5월 26일(주일) 3부 예배 시
시상 및 통독세프 간증

교육부 해피파티 ‘영암마블 세계여행’ 5월 26일(주일)

환경주일 예배 6월 2일, 특별예배 강사 :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창립 70주년 힐링토크 콘서트 6월 7일(금) 김창옥 교수

창립 70주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6월 9일(주일) 가수 윤희주, 성악가 이해원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사경회 2차 6월 14일(금) 주제 : 선교와 부흥,
강사 : 박윤길 목사(인도네시아 선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